

효천

2학년

테마독서 "환경"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굴뚝 이야기> 리우쉬공 / 지양어린이

공장 굴뚝이 쉴 새 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어서 주변 공기를 나쁘게 만들어요! 부자들은 나쁜 공기를 맡기 싫어서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죠. 하지만 검은 연기는 멀리 퍼져 저 멀리 부자들까지 덮쳤어요. 굴뚝이 만들어낸 검은 연기 가득한 하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굿바이, 플라스틱 바다> 김현수 / 썬더키즈



지우는 자신이 매일 사용했던 일회용 빨대, 컵, 배달 포장지 등과 같은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플라스틱은 점점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일상을 해롭게 하고 있대요. 이미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면 지우와 함께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효천

2학년

테마독서 "환경"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꿈틀이네 퇴비 하우스에 놀러 오세요>

시마 오즈칸 / 개암나무

풍요 아파트 뒷마당에는 퇴비 상자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퇴비를 만든 것인데요. 퇴비 상자에
살고 있는 꿈틀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우리 환경을 지켜주고 있대요! 꿈틀이가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꿈틀이의 일상을 함께 들여다
봐요.



<바다야 미안해> 조엘 하퍼 / 썬더키즈



넓고 푸른 바다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파도가
한 번 모래 위로 덮칠 때마다 쓰레기가 퍼내려와요.
우리 모두가 바다를 살리기 위해 '비치코밍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바다에 퍼내려온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모인
다면 아주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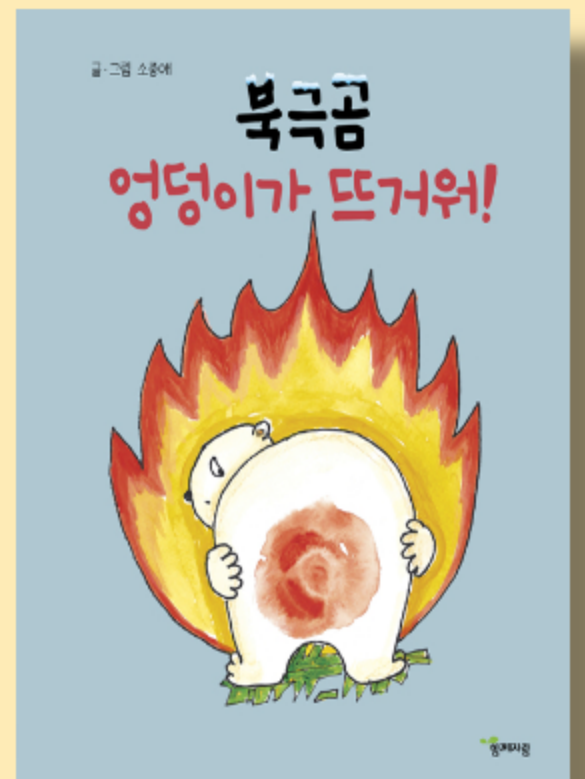
2학년

테마독서 "환경"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북극곰 엉덩이가 뜨거워!> 소중애/ 함께자람

환경 오염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얼음 위에서 살아가는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북극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북극곰의 미래를 지켜봐요.



"약으로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 마음을 다스린다."

- 카이사르 -